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오 승 통
편집인 : 박 상 호

2. 추수감시절 ·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하나

4. 평양에 심는
사랑과 평화

6 · 7. 인도 비하르를
다녀와서

9. 성경은 우리의
생활방식이다

나 침 반

교회개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4년 1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 73 호

성탄절에 대한 문화적 접근

대부분의 교회학교 아동부의 활동은 여름성경학교와 성탄절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로 걸음을 옮겼다는 고백을 들을 때면 성탄절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성탄절 프로그램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선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해외로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를 위해 성탄절 프로그램의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간증을 여전히 들곤 한다.

성탄절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들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교회 내의 끼리끼리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사회에 건강하고 올바른 영향을 주기위한 문화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고무적이다. 예전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매우 컸을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화를 접하게 했다. 교회문화는 사회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사회의 다변화에 교회가 유리되면서,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 이 둘은 거리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성탄절 문화에 대한 접근은 두 가

지 방식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교회 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성탄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과 재정을 투자하여 사람들의 걸음을 교회 내로 이끄는 것이다. 각 교회 선교지역의 특수성과 관심도 그리고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공연과 축제 등을 여는 것이다. 유명 신앙인의 콘서트나 성탄절과 관련된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교회에 기획 · 공연하는 방식이다. 어느 곳보다 교회에서 지내는 성탄절이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느낌을 주면 성공적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속으로 뛰어드는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절 문화의 변질에 대해 대안문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는 프로그램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는 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혼자 힘의 아니라 여럿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이나 도시 전체를 지역의

모든 교회가 참여하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성탄트리 축제'나 잘 짜여진 '성탄문화 축제'가 의미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탄절과 관련하여 세 번의 예배(전날저녁, 새벽, 성탄절 오전)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번은 지역의 복지시설에서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볼지하다. 모든 교회가 지역 전체에 일시에 골고루 퍼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안타까운 것은 그 힘이 교회로 분산되어 있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면에서 효과가 적다는 점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 장소와 한 시간대로 집중하여 묶는 것으로부터 소박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춘천지역의 교회 성탄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로 편된 안내지나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무엇보다 성탄절이 화개와 화해 그리고 용서와 나눔을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절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이 정배 목사(온의감리교회)



이달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 수능 부정행위 파문

수능시험 조직적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지상주의, 도덕성 상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벌주의, 과잉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전반의 시스템이 개혁되고 아울러 이 사회가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올바른 사회, 정직한 사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 성탄문화 바로 세우기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성탄문화 만들기를 통해 기쁨에 들뜬 한락 위주의 그릇된 산타문화를 배격하고 성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올바른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 간첩단 사건을 접하면서

국보법 폐지 등의 안보공백 분위기를 타고 일부 탈북자들의 이중 간첩같은 행위가 분명하게 적발되고 나라의 뿌리가 든든하게 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적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소서.

· 춘천기독교연합회 신임원

새로 선임된 남춘천감리교회의 유진형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새 임원들을 통해 춘천의 성시화가 더욱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CBS 춘천방송

FM 93.7MHz TV 스카이라이프 162번
강원케이블 73번

인터넷 방송 http://www.cbs.co.kr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영춘
최영조 최성도
정재호 이영규
김춘배 김규현
김수영 이희영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001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우리 소아과

(소아 전문 병원)

진료과목

□ 소아과	□ 피부과	□ 성장클리닉
□ 내과	□ 비만클리닉	□ 알러지클리닉
□ 이비인후과	□ 통증클리닉	□ 종합검진실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8시~오후 10시 □ 공휴일 · 일요일 : 오전 9시~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0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소아과 전문의 : 박태균
소아과 전문의 : 이병일
소아과 전문의 : 박진균
(중앙감리교회, 나병성결교회)

주 소 : 춘천시 석사동 885-2 탐크리닉빌딩 2층 · 7층
T. 263-9502~4 주치시설팀비 · 이간진료 · 입원실

목사님! 추수감사절,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글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들어가기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마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쯤 교회마다 성탄절 준비를 시작할 때이다. 하나의 절기를 보내고 새로운 절기를 준비하면서 되묻는 질문은 교회의 절기가 한 주간의 행사로 마쳐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외에도 대표적으로 사순절이나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의 절기가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절기는 일 년을 우리 주님을 구속사에 따라 구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와 사도들을 재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유대 민족이 유월절을 비롯하여 그들의 절기를 통해 그들의 역사적 사건들을 해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그 깊은 뜻을 후손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튼쁜 교회의 절기를 새롭게 회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절기를 피부에 와 닿게 생생한 감격으로 보낼 수 있을까?

들어가기

1.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추수와 저장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이 절기를 지키는 현대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 단순한 유대인의 절기를 이어받아 절기적인 행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이어 받은 중요한 유산으로서 절기를 지키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신을 되찾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적게는 일 년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절기의 의미를 발전시켜야 한다.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감사나 보호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된 구원의 감사와 함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영혼의 추수감사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일차적으로 와 닿는 것은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배드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주간의 잠깐 행사로 끝내지 말고 한 달간 다양한 예배로 감사절을 지키고, 아니 일 년 동안 준비하며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 가령, 한 달간 추수감사축제로 한주에는 영혼추수감사절로서 전도의 감사절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감사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축복의 감사를 통해 감사절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시기에 대해서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추수 때에 맞추어 절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여 더 실제적이고 한국적인 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배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 에둘봉투를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각자가 고안해서 만들게 하고 잘된 작품은 시상도 하였다. 어떤 분은 밤을 새워가며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의 내용들을 아름답게 장식한 분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는 감사절 감사대회로 찬양 혹은 찬전, 감사편지, 감사백일장 등의 잔치를 열어 감사를 표현하도록 돕는다면 감사가 더욱 더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어떤 분은 일 년 동안 365권에 감사의 목록을 적어가며 매일 감사의 에둘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신앙생활의 감격도 살아나게 된다. 좀 더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묵상하여야 한다.

2.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교회절기상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을 대망하는 감람절기가 시작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의미를 되찾는 날이다.

특히 성탄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약속을 이 땅에 알리시는 주의 날을 선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예수의 마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의 세상을 만드는 성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다. 예수님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성탄의 축복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평화를 나누어 그들을 구원시키는 예수 사랑 운동과 성시화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탄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 많은 준비가 있는 편이다. 성탄장식을 교회 안과 밖에 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예배의 변화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부터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 4주전부터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가령, 희망의 예수, 평화의 예수, 사랑의 예수, 기쁨의 예수, 영광의 예수를 묵상하며 첫 주는 희망의 예배로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힘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어서 한 주마다 이러한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성탄절 축하예배 행사들로 성탄목 테마예배, 성탄대접하기, 성탄찬양하기, 선물, 케를 예배 등의 순서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성탄목 테마예배'는 상록수인 전나무를 생명나무로 상징하며 몇 가지 장식을 붙이는 특별한 주제예배를 통해 성탄절을 회복한다. '성탄대접하기'는 12월 중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며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대접하는 축제로 저녁만찬의 시간을 교회에서 갖거나 아니면 가정별로 가정집을 오픈해서 할 수 있다. '성탄 찬양하기'는 12월 중 주일저녁이나 오후예배 때에 케를 음악이나 찬양을 부르는 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선물의 날'은 어린이와 부모와 함께 하는 부모의 사랑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카드와 선물을 나누는 행사이다. '케를예배'는 성가대와 온 성도가 함께 하는 새벽의 케를 찬양축제이다.

나오는 말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 절기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교회의 절기를 유대인들의 절기처럼 지킬 수 없다는 치타라도 절기를 회복할 때 우리 신앙이 더 이상 매마르지 않고 생기를 회복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한 주간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

에 감사가 무르익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회복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예배의 회복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예배

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

른 프로그램이 개발된

다고 하더라도 별의미

가 없다. 올해의 남은

시간동안 세상살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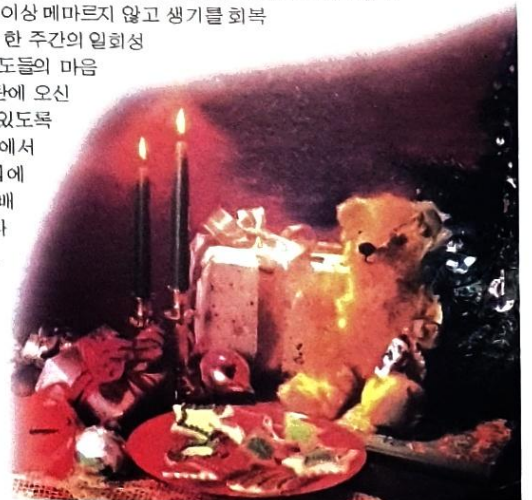
냉랭해진 가슴이 다

시 뜨거워지고 온몸

으로 부딪기며 느낄

수 있는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자.



◀ 안 내 ▶

베드로 선교센터 · 베드로 병원

지난 20년 동안 저희 베드로선교센터와 병원을 찾아주시고 후원해주신 환자분들 · 목사님들 ·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을 기해 병원과 선교센터 이용에 변화가 있으므로 안내를 드립니다.

◆ 베드로병원 : 1층과 2층은 병원급으로 바뀌어 운영이 됩니다.

◆ 베드로선교센터 : 3층 · 선교센터 · 세계선교연구원 사무실

·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4층 · 베드로 어린이 선교원(기독교 무료 유치원으로서 계속 운영합니다.)

· 어린이 전도협회 · 청소년교회 사무실

5층 · 선교세계관학교(MPS)

· 세계선교연구원

· 4개의 강의실과 대강당(추수홀)

* 정형외과는 해외선교로 인해 얼마동안 진료를 못합니다.

* 베드로선교센터의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선교센터 ☎ 253-3399

조은제 011-309-5373 sancps@hotmail.com

기정익 011-9901-1149 sancps@hanmail.net

춘천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본 글은 춘천성시화운동에 기여하셨던 故 김연호 목사의 아들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와 함께 나눈 좌담입니다.

조 : 오늘은 1970년대 춘천 성시화의 기반을 마련하셨던 김연호 목사의 이야기와, 1970년대 시작된 춘천 성시화의 활동 상황, 그리고 춘천 성시화운동이 어떻게 그 기틀이 마련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 목사는 오랜 시간 춘천에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CCC의 김준곤 목사님, 윤수길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춘천 지역에서의 복음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1972년도에 성시화운동을 시작하셨죠. 그런 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김성호 목사님께서도 젊어서부터 성시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당시 춘천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였던 춘일감리교회를 맡아 성장시키시면서 활동하시다가 20여 년 동안 외지에서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춘천의 강촌감리교회로 오시게 되어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춘천 성시화에 대한 꿈을 아직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김 : 사실 제가 앞에 나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은 아니고, 차세대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나누었던 정도였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는 당시 춘천의 젊은 지도자들이었던 IVF 남진선 간사, CCC 조영상 간사, 예수 전도단 최철만 선교사, 조영춘 형제, JDM 문태호 목사 등이 그 분들입니다.

정 : 아주 우연한 기회에 김연호 목사님께서 쓰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른다’는 책을 읽게 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도 춘천성시화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더군요.

김 : 아버님이 잠시 춘천을 떠나셨다가 다시 춘천 광장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돌아오신 아버님께서 흠이진 조직을 재 정비하시고 1979년에 체육관에서 춘천성시화운동 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춘천 성시화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처음 운동이 시작되었다가 아버님이 춘천을 떠나시고 주춤했던 운동이 다시 아버님이 춘천으로 돌아오시면서 1979년도에 재가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981년 봄,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시 동면기로 접어들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춘천 성시화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춘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오시던 장로님들(조남진, 이학규 장로 등)을 주축으로 오늘의 성시화운동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춘천에는 옛날부터 ‘다락방’이라는 기관장 기도모임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오시던 다락방 모임이 정착되면서 춘천에는 모든 도지사, 시장, 법원장, 감사장 등 모든 기관장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도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현재 뉴욕에서 호신교회를 하고 계시는 방지각 목사님께서 이어 받으셨고, 또 한길교회 이영호 목사님께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가셨는데, 당시 감사장으로 오셨던 춘천성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성시화운동을 위한 열정이 밑거름이 되어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이 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의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목사 등 젊은 분들이 참여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회고해보니 감격스럽고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 벌써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 하셨네요.

김 : 80년대 초 저와 함께 성시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기던 조영춘 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춘천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춘천 성시화의 꿈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춘천에 있으니까, 그 비전과 꿈이 그렇게 미래의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춘천으로 돌아와 함께 그 위대한 춘천 성시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떠난 다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늘 춘천을 품고 기도를 했었는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잃고 젊음이 다 소진되어 이런 일 하기 힘들겠구나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춘천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테인데 말입니다.

조 :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춘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것이 있습니다. 춘천에 다시 와서 보니까, 열심이 있는 분들이 앉아서 일하고 계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춘천으로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성시화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강원도 횡성 출신이신데, 서울의 이름난 교회에서도 여러 번 청빙을 받으셨지만 다 마다하시고 춘천으로 오셨습니다. 고향 강원도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버님은 춘천으로 오시자마자 춘천을 모델로 강원도에, 그리고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춘천 성시화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미려한 힘이지만 춘천에 돌아와서 아버님 하시면 일

을 이어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앉아서 일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정 : 책을 통해 본 김연호 목사님은 단순히 지역교회의 인물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민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다시금 추구해야 할 모델, 사표가 되시는 목회자 상을 보여 주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 지금 돌이켜 보면 저희 아버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알의 죽은 밀알이 되고자 애쓰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던 아버님이 대동강 다리 밑 빈민굴에 들어가 신랑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정말 가난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했고, 그 자리에 야학을 세워 그들에게 글을 깨우치게 하고 민족사관과 함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빌어먹던 그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어 자립의지를 심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일본 경찰에 불려갔다가 신학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시고 결국 평양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정 : 7-8년 전에 춘천 성시화 운동에 대해 스케치 하면서 강원일보를 다 뒤져본 일이 있었는데, 춘천 성시화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김연호 목사님 기사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춘천 성시화의 밑거름을 확실하게 다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김 : 어떻게 보면 성시화운동이 단지 복음운동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버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도시 전체를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한 거룩한 도시로, 법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모델로 해서 춘천을 바로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 : 당시 김연호 목사님이 춘천 성시화 운동을 추진하실 때 교회 연합이 잘 되었던 편이었나요? 춘천의 경우도 잘 되는 거 같으면서도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교단간의 연합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김 : 당시는 교역자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있었는데, 연합운동이 참 잘 되었기에 성시화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도력이나 구심점이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지금과 달리 교회가 많지 않았고, 특출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당시에 큰 교회들이라 할 수 있는 춘천중앙교회, 동부교회, 제일교회, 성광교회, 중앙성결교회 등의 목사님들뿐 아니라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도 상당히 협력을 잘해 주셨습니다. YMCA, CCC 등이 춘천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교회 연합운동이 잘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 : 끝으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시화 운동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춘천성시화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 : 신앙운동은 연못에 던지는 작은 돌이 일으키는 파문과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바윗돌을 던져서 전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구촌 아주 작은 마을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작은 파문이었지만 결국 땅 끝까지,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 춘천에서 일어나 성시화운동도 작은 파문이 계속 퍼져 나가는 것처럼 강원도로, 한국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972년도에 작은 도시 강원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 운동이 대전으로, 부산으로, 아수로, 지금은 전국 도시로 퍼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시적이고 언저 중심적이기 보다는 내용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천국복음운동이 우리의 제일 좋은 모델이죠. 그리고 지금도 성시화운동을 위해 많은 목회자, 평신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춘천에서 자란 사람들, 춘천을 고향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도 지역 사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춘천에서 나고 자라면서 춘천 성시화의 비전을 가꾸어 온 분들이 중심이 된다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열매도 더욱 알차게 맺힐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 : 지금까지 유익한 말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춘천 성시화 운동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 : 2004년 11월 27일 오전 10:30 강촌감리교회
좌담 : 김성호 목사(이하 김)
조영춘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하 조)
정재호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하 정)
이희영(춘천성시신문 편집자)
김미경(성시화운동본부 간사)
진행 : 조영춘/글 정리 및 사진 : 이희영,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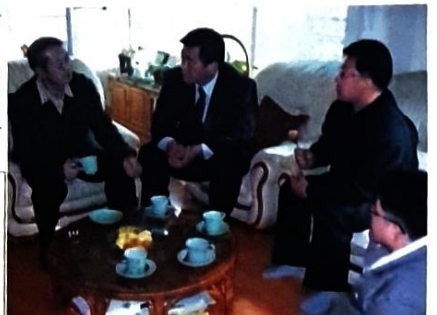


▲ 김성호 목사

▶ 故 김연호 목사



김성호 목사
원 춘천 강촌감리교회 담임목사
춘천 중·고등학교 졸업,
서울 강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전공
춘천 광장교회, 춘일교회, 예수 진남제일교회
원주 부문교회, 여주제일교회, 태백한빛교회에서 시무
여주 경희서경목원장 및 경철교회 담임목사
태백시 교정교회 회장 역임
태백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역임
강리교 동부교회 태백지방 감리서 역임
강원도 MRA 운동 대표 심수년간 역임
35 번째 한글 이름 보급 운동과 한민족사 바로 세우기 운동
및 구속사적으로 한민족사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음



평양에 심는 사랑 한 그루 평화 한 장

글 구영록 간사 (춘천지역 담당)

분 단 60년의 아픔을 지나 민족과 화해와 회복, 민족의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
기오는 통일 시대와 통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평양에 과학기술대학
이 세워진다.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남한 대학생들의 모금으로 한 장 한 장 벽돌
이 옮겨져 2005년 9월에 개교할 평양과학기술대는 북한 정부와 협의해
평양에 세워지는 최초의 남북 합작 국제대학이다. 대학운영
을 남북공동으로 하는 평양과학기술대는 남·북측의 교수 학자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기업인들도 함께 만나서 일하는
민족 동진성 회복의 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체제가 서로
만나서 함께 배우며 일할 수 있도록 중간 지대의 역
합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통일로 가는 지름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북측의 지도계층이 서방세계
와 국제사회의 시장 기능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대화와 교역의 통로
가 될 것이다. 아울러 장차 통일 시대에 함께 손잡고
일할 남북의 청년 인재들을 배양하여 한반도에서 뿐
아니라 중국 대륙을 경영하며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주역이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된다. 학술 대회를 개최
하는 등 대학이 지닌 여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
북한 학자들이 함께 만나 토론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대학
단지 내에 지산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남측 및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그
일에 졸업생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 우리의 적인 북한을 돕는 일이 아니냐는 반문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화해를 결정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우
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지 않으면 통일이 다가왔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남한에서 떠안게 된다. 그
것은 우리에게도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
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북한 사회가 우리와 함께 경제
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평양 과기대에서 북한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야는 군사적 목
적이거나 첨단 과학 분야의 민감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 컴퓨터 분
야와 MBA, 농업식품분야, 기계재료분야 등 북한 경제가 자립하는데 도
움이 되는 분야를 다루어 두 체제가 만나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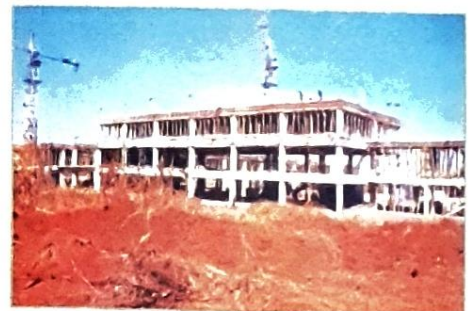
는 기초를 쌓을 것이다.

통일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서로의 체제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준비 작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갈 때 양측 사회의 불안요소와 불신감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사업도 물론 지
속되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통일 시대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각 분야의 전문가로 미리 준비시
켜야만 통일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따
라서 평양 과기대를 통해 교육받은 북한의 청년들
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로가 더 이상 반목하는 관계
가 아닌 형제와 동역자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통일이 그 문을 열 것이다.

지금은 기독교청년대학생들이 이 시대와 민족의 역사
앞에서 좀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결국 통
일 문제는 지나간 시대의 몫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통일
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들의 몫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들을 단순히 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역자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 더 많은 분들
이 평양 과기대(www.pust.net)를 함께 세우겠다는 각오로 뛰어주시기
를 바란다. 평양 과기대에 대한 이해를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주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기도하고
물질 후원에도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장차 통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평양 과기대를 짓는 일에 동참함으
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왜곡되었던 우리의 근대사를 바로 펴고 장차 후손들에게 떳떳한 통일 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첨여 문의: 춘천지역담당 구영록 간사 011-9058-3192 / 학원복음화협의
회 02-8335-9743]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섬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양로원 (11층건)

휴식공간

주소: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 (의암댌발전소 의암원천지내)
전화: (033) 262-7923 ~ 4, 262-5694, 019-224-8796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 8시
- 금요 할야집회 - 금요일 밤 10시부터

섬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성성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새 주인을 찾습니다



춘천 기독교서점

(내년 인도 선교사 파송 예정)
시정 맞는 편

대표: 유인순

☎ 033) 257-5725
019-319-6837

말씀이 이끄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 탐방으로 예담교회(권기찬 목사)편입니다.

온 의동에 위치한 예담교회는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교회이다. 그러나 본래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개조한 탓에 신생 교회답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세련된 내부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언제나라도 수십명이 풍성하게 티타임(Tea Time)을 가질 수 있는 넓은 교제실, 주일 예배 후 형제자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름다운 모임을 갖는 모습이 절로 상상이 된다.

예수님을 담아 나눠주는 교회

2002년 봄 한상호 장로를 비롯한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3월에 개척, 같은 해 6월에 권기찬 목사를 청빙함으로서 교회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예담교회의 '예담'이란 '예수님을 담아 나누어 주는 교회'라는 뜻으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열어놓고 공묘(公廟)한 결과 한상호 장로의 안(案)이 채택되어 지금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권기찬 목사의 신앙이력을 묻자 권목사는 자신은 비교적 늦게 주님을 만난 경우라고 설명한다. 중고등부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돌이켜 보면 주안에서는 의미없는 시간들이었다. 그 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은 군입대 후, 한사령관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한 후배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 후 주님께 남은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1981년. 그 해에 대한 신학교에 입학하고, 1988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다.

서을 신성장로교회와 인제 서현교회, 원동 화평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목회하였다. 하지만

권목사는 젊은 시절 특수목회사역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성경원어연구로 잘 알려진 프리셉트사역과 [매일성경]묵상집의 발간으로 유명한 성서유니온 사역이 그것이다. 권목사는 한국 프리셉트의 초창기 멤버이다. 당시 강해설교가로 유명했던 케이 아더 목사의 집회를 계기로 1983년 최복순 등과 함께 프리셉트 사역을 시작하였다. 권목사의 남다른 성경에 대한 안목과 사랑이 여가서 시작되게 된다. 그 후에 성서유니온을 통해 실제로 성경묵상을 훈련받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91년부터 성서유니온 전주지부 간사로 3년간 활동하였으며, 1994년부터 3년 동안 [매일성경]을 집필하고 편집하는 일에 실제적인 책임을 맡아 사역하게 된다.

말씀 묵상 중심 교회

예담교회의 중심철학은 '말씀의 묵상과 삶의 구체적 적용'에 있다고 권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온 교우들은 동일한 본문으로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성서유니온사 매일성경 묵상 본문),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여 나누는 모임을 적어도 3회 반복해서 갖게 된다. 권목사는 새벽예배시간에 그날의 본문을 강해하고(1회), 6개의 목자가 이끄는

는 초장모임(구역모임, 혹은 속회모임) 또한 기존의 공과공부 스타일이 아니라 그 주간에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용하는 모임이며(2회), 주일예배의 설교도 그 주간의 묵상 말씀 중 주님이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 조명하여 선포하기(3회) 교우들의 이해도 빠르고 공감하는 설교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방첩(방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다행히 고백하듯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9)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권목사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부터 영향을 준 스승은 배명준 목사(남대문교회)와 최선근 목사(한양대 교육대학원장 역임)이다. 배명준 목사로부터는 "목회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최선근 목사로부터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전수받았다. 늘 이러한 자세로 목회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권목사의 모습 속에선 온유함이 느껴진다.

권목사는 최근부터 성경번역선교회로 널리 알려진 GBT의 춘천지부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한국 GBT의 대표로 섬기는 권성찬 선교사가 그의 천생생이다. 이 또한 말씀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권목사는 GBT사역중 위클리프 스쿨을 우리 모두에게 권한다. 봄, 가을 학기 두 번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진 강의 내용은 번역 선교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최대명령인 선교의 기본적인 관점을 배울 수 있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다(매주 월요일 7시 본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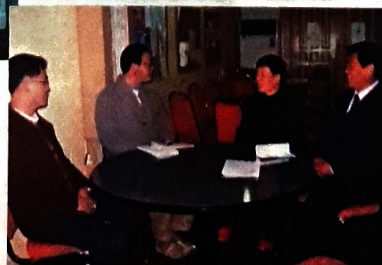
권목사와 동역하고 있는 최금순 사모(41세)는 상담사역자로 알려져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센터에서도 상담가로 봉사하고 있다. 권목사와 최금순 사모 슬하에 용범('89년생), 용지('94년생)가 있다.

권목사는 주중의 많은 시간을 분주한 활동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로 보낸다고 한다. 묵회자의 기본 임무를 '말씀선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교회의 본질적 사명보다는 경영기법, 마케팅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예담교회의 사역 자세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권목사의 이러한 묵회정신이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어 춘천이 '말씀이 이끄는 도시', '말씀으로 흥왕하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취재 최상도 목사, 사진 김미경 간사)



권 기 찬 목사
1957년 2월 1일생
1985년 대한신학교 졸업
1988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1983~89년 서울 신성장로교회 교육전도사
1989~90년 서울 신성장로교회 부목사
1991~94년 성서유니온 전주지부 개척 간사
1994~97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 편집간사
1997~2000년 인제기린 서현정로교회 담임 목사
2000~2002년 인제 원동 화평정로교회 담임 목사
현 2002년 6월 - 예담정로교회 담임 목사4
☎254-2183/011-276-6105



"성령의 불길로 춘천을 인도하소서"

위 급 품 목

- 프랜차이즈
- 건축
- 이건
- 이공

[주] 유 성
(토목 건축 공사업)
대표이사 신 중 철
☎(033)263-6903~4

천이노기회 since 1978
대표 천 일 안수필사

실사, 나염, 인쇄물, 판촉물
족자, 썬팅, 기타상당

교회현수막 전문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Tel. 255-5722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Fax. 256-5722 * 기술담당 : 박승기 **디자이너 (구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

영적으로 입양한 땅 인도 비아드

지금까지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비하르를 영적으로 입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과 사랑을 심어 왔다. 이번 춘천성시화 선교대회를 통해 남은 재정인 5천불과 티셔츠 2백벌 등을 회장님의 따뜻한 기도와 환송 속에 연합회 임원등 11명이 인도의 비하르를 향해 11월 1일 선교여행을 떠났다.

인도의 비하르는 북쪽에 위치한 불교의 발생지로서 약 85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인도가 안고 있는 종교적 신분적 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요즘은 공산주의 마저 제 창궐되며 테러가 만연될 정도로 혼란한 곳인 데서



교적으로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배타성이 아주 강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간다고 하는 자체가 무척 긴장되는 일이었는데 이번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하나

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하르의 수도인 파टना에는 7여년을 선교하며 믿음의 씨를 뿌린 이영길 선교사(동부교회출신)가 있어 이곳 현장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문맹율이 60%이상이라 문맹퇴치학교를 세우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위해 쓰레기 처리운동, 여성자조그룹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에 힘써 오는 등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엔 특별히 인도의 정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속에 문맹퇴치학교의 후단체인 미션학교와 교회개척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한 정신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원주신림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신 김범일 장로님도 함께 동행 하시었다.

첫날부터 인도 중앙정부의 각료인 농업개발부장관과 사회정의부 장관과의 만남을 가졌고, 인도 대사와 참사와의 만남을 통한 인도실정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비하르주에서의 수자원장관 그리고 비하르 수상과의 친견 등은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최선의 후원에 대한 약속은 인도선교의 미래를 보게 하였다. 후에 파टना에 있는 A.N.칼라지 학장을 비롯한 중요한 농업관련 학자들과의 포럼과 해외 경제협력단과의 세미나 등은 학계와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유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학교들이 들어설 자무이의 천베리아 마을로 향하여 갈 때 그곳 출신의 장관인 동력자원부장관과 열차에서부터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고 도시에 도착 후 장관과 함께 그 지역의 군수와 부군수의 열정적이고 따뜻한 영접을 가히 인상적인 환대였다.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환영게이트를 만들어 모든 마을의 총장들이 나와서 꽃다발과 함께 환영을 계속하여 주었고, 장관의 친척집에서는 이례적으로 지역민들과 현지 유지들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식사를 마을입구에서는 민속음악대의 환영식 그리고 밤을 밝히며 열정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마을사람들이 모여 호의적으로 환영하던 지역민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한마을에는 약 일천여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마을 전

주민이 또 세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약 3천여 주민들이 가득 모이는 대성황을 이루는 집회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인도의 개발을 막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신분 즉 카스트제도의 문제이며 종교적 갈등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개발과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장벽이 허물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연설을 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후에 마을 의회격인 지역 개발 지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알렸고 이런 학교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땅이라도 내놓겠다는 결연한 모습까지 보였다.

마을에서 파टना로 돌아온 후 장관과의 친견을 통해서 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개발을 위해의 정서등 문서적 합의가 서로에게 필요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곳 다르방가라는 티베트가 가까운 북쪽 도시에서 미국선교사들과 협력하며 수고하는 은혜교회 출신 남병진 선교사를 방문하여 그 지역 목회자 약 15명 정



제이락

음반발매 감사찬양예배

JLOc

일시: 12월 13일(화) 오후 7시 강원대 백병회관
관: CCMZ.COM
주최: JLOc
게스트: POINT, 강찬
후원: CBS춘천방송,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에덴실과

생일, 결혼, 금진, 효도 대표김정환안수집사
문병, 개업식 각종 기념일
영사에 필요한 과일
문안카드와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주문
(033)242-5252
256-5252
후평동 현대 2차APT 앞

제이락

음반발매 감사찬양예배

JLOc

일시: 12월 13일(화) 오후 7시 강원대 백병회관
관: CCMZ.COM
주최: JLOc
게스트: POINT, 강찬
후원: CBS춘천방송,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에덴실과

생일, 결혼, 금진, 효도 대표김정환안수집사
문병, 개업식 각종 기념일
영사에 필요한 과일
문안카드와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주문
(033)242-5252
256-5252
후평동 현대 2차APT 앞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 인도 비아르를 다녀와서...

도와 연합하여 위로의 시간과 함께 기도를 하며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용기와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고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인도 중앙지 신문과 방송 지역 신문 등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며 연일 보도를 하였다. 이들은 아주 상세하게 기사로 기록하였다.

참고로 그들신문에 난 기사의 내용을 잠깐 보면 "락시미 풀 지역 중심에 있는 천베리아 마을에서 가나안 농군운동의 대표 김범일님이 인도의 중앙정부 수자원 장관인 제이 프라카쉬 아다브와 함께 한 가운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포하였다."

새마을 운동을 출범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나안 농군운동 대표인 김범일님은 "오늘부터 30년 전의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정부와 농민들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한 결과, 남한은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오늘날 1인당국민소득이 10,000불에 도달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돈의 힘으로 선진국 것이 아니라 땅과 수로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말하며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의 마을과 나라를 개발하고자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GNP 100달러에서 6천달러 이상의 기적같은 역사를 일궈낸 자력이 있는 경험을 한 나라이다. 이를 선교적 마인드로 더욱 강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복음화와 사회개발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복음의 문을 열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이번 선교여행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감사한 것은 춘천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물질과 함께 기도를 심으면서 헌신해 왔다. 광명감리교회는 이 지역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현금을 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고, 문맹퇴치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춘천은 해장토교회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매달 약 250만원 정도로 후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효자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학교를 위한 자금들을 모으며 현지의 성경위기학교와 신학생교육을 위해 후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늘사랑장로교회와 열린순복음교회 나눔성결교회 그리고 남춘천침례교회와 거성교회 평강성결교회 갈릴리감리교회와 춘천그리스도교회 사임성결교회 등이 적극적으로 이 여러 지역에 협력 후원교회가 되어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제 이 비하르주의 개발지역은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선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보았던 또 하나의 마케도나 사람의 손짓처럼 보이는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는 환상의 확인 여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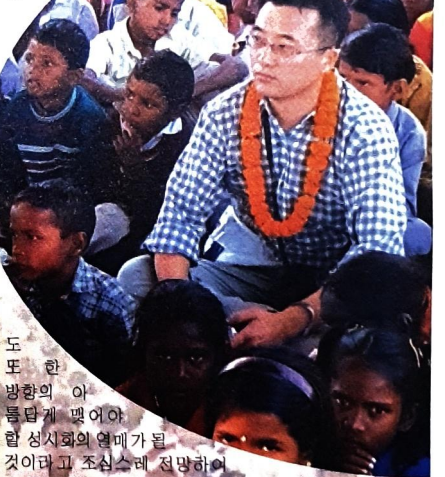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회들의 적극적 선교의 연합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뿐만이 아닌 이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춘천시나 강원도가 연계협력함으로써 범 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성공한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한 복음적 새마을 운동 즉 정신을 변화시킴으로 힌두교 모슬렘의 장벽을 허물고 신분의 장벽을 허무는 운동이 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며 지역개발을 시키는 등의 통합적 전 민족복음화의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성시화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꿈을 보게 되었다.

이번 1월에는 광명감리교회 청년부가 또 다시 인도 비하르를 향한 단기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춘천의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품고 기도함으로 이 땅이 복음으로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글 인도비하르여행의 이 상홍)

사진의 평가

귀빈스튜디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악·돌·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기념사진촬영

대표 신병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창조와 신성을 제일로 하는 조경전문건설업 면허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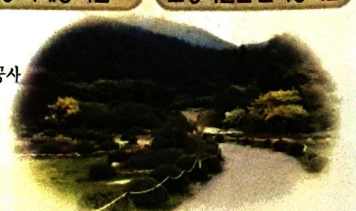
강원농원조경공사

조경설계 및 시공전문

조경 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 재배잔디판매
- ◆ 정원공사, 주택, 별장, 가든 조경공사
- ◆ 서드스프레이, 자연석 쌓기
- ◆ 각종 목목, 생산판매 전문
- ◆ 재배 잔디 생산, 판매 전문
- ◆ 각종 관상수/조경수 전문



춘천시 근화동 266-2(강원예식장 뒤) 대표 임희방
☎ 254-8986 / FAX 255-8981(아간:254-5930) / H·P 011-369-1278

소개합니다

MEK 군 선교

이후 특별한 선교 곧 생명력 있는 선교를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1972년 5월 29일에 설립된 이래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두 14개의 지회가 설립되었고, 강원지회는 2002년 3월 11일에 설립되었다.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군선교를 흔히 황금어장이라 일컫는다. 그만큼 젊고 싱싱한 영혼들을 많이 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해에 20여만 명씩 세례를 주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곳은 군선교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소수의 군목이나 군선교 민간 교역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장이다. 일반교회와 군교회 그리고 일반 목회자와 군선교 관계자들과 함께 연합함으로써만 감당할 수 있는 어장이다.

이 황금어장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군선교는 21세기 기독교운동인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운동은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하겠다는 프로젝트로 신병교육대 및 훈련소에서 세례 받은 병사의 명단(신상정보 포함)을 군선교연합회 및 지회를 통해 회원교회가 확보한 후 이 자료를 근거로 그 병사와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선교연합회본부에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여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결실로 병사가 제대 후에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아울러 그 가족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의 결실을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해서 그 병사가 반드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좁은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 해도 어느 곳에서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비전2020운동 이외에도 군선교 강원지회는 주요 사업으로 군인교회건축, 비품, 위문, 사랑의 온차 보내기, 전도사업(문서, 찬양선교) 등을 하고 있다.

사랑의 온차 보내기는 지금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초소군무자들에게 군종목사 및 군종병과 신우형제들이 순회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도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전도의 효과를 얻은 겨울철 군선교의 중요한 활동으로, 성탄절 장병위문 프로그램이다.

바라건대 군선교 강원지회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타종교와 이단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황금어장인 군에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며 잘 가꾸면 그 열매는 몇 십배, 몇 백배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춘천·화천 지역의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여가기를 소망해본다.

[글: 강원지회 총무 박태원 목사/평화군인교회 담임]

영혼의 양식

현 사태에 대한 열린 토론

이사야 1:18-31

예담교회 권기찬목사



유대 백성들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의 심판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돌이킬을 받지 않는 한 멸망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백성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더 관심을 기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백성은 살인자 집단이 되었습니다. 고대세계에서 주홍과 진홍은 가장 값속이 또 가장 철저히 염색시키는 물질로 이 물이 든 천은 탈색시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물질처럼 손에 이웃을 해치고 상처를 주어서 묻은 피가 잔득 물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은 은 나라의 불의를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구하며 고아나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회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순결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오염된 불결한 신앙이었습니다. 순결한 빛을 잃어버리고 불순을 섞어 찌꺼기가 되어버린 은처럼 되었고,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맛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헌신과 영성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지는 말은 서로 알고 그들을 차근차근 헤아려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의 피가 손에 잔득 묻은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을 진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정결케 하기 위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

보다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녹여 순도 높게 하는 과정에서 장인은 죄를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그 찌꺼기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명확하게 보이는 정도로 순도를 측정합니다. 주님도 정결의 용광로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찌꺼기와 불순물같은 불경건한 자들을 제하고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시킬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거절하는 완악한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힘의 상징이었던 상수리나무를 섬기며 물만 동산처럼 반성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대신 탐욕의 우상을 찾아다닌 자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와 불 없는 동산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대신 힘과 번영을 즐겼으므로 생각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어디에 관심을 쏟고 온 정력을 바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양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 의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여 심판을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불타기 되어서 온통 자신을 사르고 멸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결말을 맞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멈춰야 할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한국기독교군선교 강원지회

◆ 섬기는 이들

- ▷ 이시장: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 ▷ 지회장: 박상호 목사(춘천제일교회)
- ▷ 총무: 박태원 목사(평화군인교회)
- ▷ 회계: 이순훈 장로(춘천제일교회)
- ▷ 사무국장: 마철규 장로(춘천제일교회)

◆ 담당 지역 및 부대

- ▷ 지역: 춘천, 화천
- ▷ 부대: 2군단 지참부대, 7, 15, 27사단 102보충대, 춘천병원, 방포 155대대, 공군898부대, 1군지참 춘천·화천지역부대

* 후원계좌: 농협 203-02-434466 비전 2020 강원지회 마철규

◆ 주요 기본 사업

- ▷ 비전2020실현운동 (진중세례후원, 군인신자결연 양육관리, 군선교 회원교회 관리)
- ▷ 군인교회건축, 비품, 위문, 사랑의 온차 보내기, 전도사업(문서, 찬양선교) 등

◆ 참여 방법

- ▷ 교회회원: 월 5만원(1구좌) 이상
- ▷ 단체회원: 월 5만원(1구좌) 이상
- ▷ 가족회원: 월 1만원(1구좌) 이상
- ▷ 개인회원: 월 5천원(1구좌) 이상
- ▷ 평생회원: 일시금 200만원 이상
- ▷ 특별회원: 특별 기부금 및 물품증정

2004 사랑의 온차 보내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초소군무자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마음을 군종목사 및 군종병과 신우형제들이 순회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도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러분도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을 전하여 줍시다.

* 후원계좌: 농협 203-02-434466 비전2020 강원지회 마철규
* 문의: 033)241-4361 총무 박태원 목사

성경은 우리의 생활방식이다.

성경은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십자가 진리를 기본구조로 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적용이 혼란과 시행착오에 얽힌다. 그 혼란은 기독교의 세속화와 기복신앙 등과 같은 심각한 변질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의 연속성과 병행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기인한다.

첫 창조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새 창조가 성립되지 않으며, 새 창조를 목표로 하지 않는 첫 창조의 그 어떤 계획과 시도도 무의미하고 공허할 뿐이다. 첫 창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새 창조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병행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적 성취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신앙을 현 시점에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현존과 제림 사이의 연속성과 병행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는 것과 제림 후 그리스도의 왕국을 경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만 올바른 제림신앙이 될 수 있다.

현대주의 기독교의 지나친 현실참여 신앙과 근본주의 기독교의 지나친 현실도피적 신앙은 성경의 기본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두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이해도 현대주의적 이해와 근본주의적 이해가 상충할 뿐 아니라 두 노선의 이해 자체가 성경의 순수한 빛과는 참담히 이질적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현대주의는 첫 창조와 새 창조 중 어느 한쪽만을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짙는데, 그 결과 종교 사회주의로 치닫든지 아니면 현실도피적 종교로 치닫게 마련이며, 두 노선 다 성경 중심이라 주장하면서 성경을 이용하지만 사실상 성경의 순수한 진리의 흐름을 놓친 채 변질된 모델임을 자증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 세상에 속한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경의 기본구조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원래 성경이 의미하는 교화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현 세상에 있는 보람들보다 더 큰 부로 여길 것이다(히 11:26).

또 하나의 예로서, 크리스천의 청지기 개념도 성경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에 따라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현 시대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리는 부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평균적 삶(잠 30:8,9)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가난한 것만이 크리스천의 삶은 아니며, 그렇다고 세상 부를 마음껏 누려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부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평균치는 매우 낮은 생활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 청지기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의 연속성과 병행구조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식생활의 근본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적어도 식도락을 즐기는 크리스천상은 바르게 될 것이며, 반대로 금욕주의적 크리스천상도 바르게 될 것이다. 질제라는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는 가장 적합한 조건이 바로 인류평균적 청지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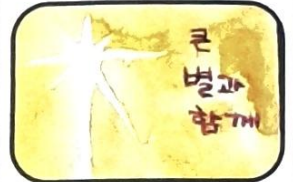
크리스천의 소평생관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부의 편중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는 인류평균적 청지기 삶을 추구하는 성경신자들을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크리스천의 직업선택과 돈버는 동기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인류평균적 청지기직은 불필요한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묘히 기독교적 포장으로 위장하는 기독교 위선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리라 기대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기본구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실감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임을 자각하기에 이를 것이다.

글 편진부

성시름

<김춘배>



춘천 닭갈비

Tel. 244-0008

016-668-0179

춘천닭갈비.net

dgbmall.com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 한시령(1인원) · 배시령(2인원) · 능시령(3인원)

월드비전 후원 계좌 : 농협 240-01-078120

☎ 254-7241 ☎ 515-01-038052

우체국 2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자유인

서규환 (평성성결교회 목사)

역사의 사슬이 끊어지고
오랜 강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하늘을 날으는 한 마리 새
자유가 따듯처럼 밀려오고
하늘 아래에 밀려 밀려가는데
그 바깥은 몸과 사고 가슴까지 벽처럼 하네

먹고 마실과 누워서 죽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어도
인생은 길 잃은 유랑자
유리하는 양떼
물마시고 일어선 어느새
눈앞에 다가온 죽음, 이력의 물음소리
망 놓고 사는 것 같기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포로일 뿐이네.

주님이 날 부르실 때
그 음성만으로도 너무 강하게
주님 개인 곳 찾아가네.
아직은 다 볼 수 없고
아직은 다 알지 수 없어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생명수의 강에 땀 흘리고
내 영혼 그 강에서 자유 얻으리.

방송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CBS 춘천방송은 춘천지역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설립된 선교기관으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대중을 향한 선교방송이며, 특별히 CBS TV는 순수복음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1) CBS 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라디오 FM93.7, CBS TV: 스카이라이프 162번, 강원케이블 73번, 인터넷방송 www.cbs.co.kr)

2) CBS 춘천방송 운영에 동참해 주십시오.

▶ARS 전화 한 통에 1천원 현금됩니다. ☎ 060-700-0937

▶온라인 농협 : 203-17-000933 조흥 : 515-03-003825

신협 : 04073-12-002331 예금주 : 기독교방송

▶지로용지 (지로번호 : 800681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 255-2001~2

CBS춘천방송 본부장 김진규

평창, 스키, 천안지, 보스터, 카다로그, 서해방부, 서식

명시용, 단체복, 유니폼, 단체T, 현수막, 실사현수막, 관측물, 행사 기념품

동합광고 기획사
리피아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 chsch1784@yahoo.co.kr

TEL : (033) 263-5152

FAX : (033) 242-5121

/ 포 / 토 / 예 / 세 / 이 /

성탄절 트리의 기원

중고 개척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둠의 숲이 동물들을 쫓는 듯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모양의 송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작은 사랑 아름다운 세상

글, 정해창 목사/제자김리교회, 춘천연탄은행대표

헤르만 헤세는 "인간의 의무는 행복해지는 것 오직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인간이 허락되지 않은 사회적 악자들이다. 사회구조적인 악(惡)이나 모순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추락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남의 탓으로 돌린다. 오직 내 관심은 남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에만 두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청소부가 거리 쓰레기를 청소해주지 않으면 당장 악취 나는 세상에 살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사회적 악자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

인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세상을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이란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선을 행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돕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도 한 눈으로는 자신을 보고 다른 눈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다. 단 돈 100원이면 지구 저편 소말리아에 있는 굶주린 소년을 한 끼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활짝 웃게 만들 수 있다. 단 돈 300원이면 추운 겨울 연탄 땔 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 한 장을 전해줄 수 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소유와 삶을 단 1%만 개선하고 변화시켜도 우리는 모든 일에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사회에 만연된 질병이나 악을 치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악자의 한과 눈물을 씻어줄 수 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은 거창한 복지 프로젝트나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1%의 작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도움과 실천이다. 오늘날 J M F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중산층에서 신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90년 이후 사라졌던 연탄 때는 가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아픔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게도 있지만,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 외롭고, 연약해서 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사회적 악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단 1%의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면, 그 사랑이 모여져 그들이 한숨과 눈물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단 1%의 사랑과 관심, 변화와 진보 없이는 99%의 아름다운 세상, 아니 100%의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 수 없다.

[문의 033251-7141/010-9733-5036
www.clb.or.kr]

구인·구직광고

"너의 짐막 터를 넓히라. 짐막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때려. 너의 짐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신뢰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상시와 운영본부

신문배 포를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033 256-1260
010-3118-9355

행사안내

□ 교회 조직 세미나 □

동강원 노회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조직 세미나
- 일시: 2004년 11월 30일(화) 오후 7시
- 장소: 흥천회교회
- 대상: 목새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교회 재정부장
- 주제: 어떻게 성결 것인가?
- 강사: 황병호 장로(춘천제일교회 수석장로, 강원대학교 교수)

예정대신축 강원노회 교육부장
사공 정 목사(춘천중앙로교회)
[문의: 춘천중앙로교회 033 257-2001]

□ 오순절 교회 □

행동하는 친구들 뮤지컬 공연팀
초청 인도교회
- 일시: 2004년 12월 1일(수) 저녁 7시 30분
- 강사: 서원섭 집사(전 개그맨)
"영원회복, 축복성화"
- 일시: 2004년 12월 6일(월)~12월 9일(목) 낮 11시, 저녁 7시 30분
- 강사: 김재원 목사(인헌 열린교회)
매주 목요축복성화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강사: 12월 1일 허동석 목사(한사랑교회)
12월 16일 이윤구 목사(강북영성교회)
12월 23일 김상국 목사(사촌교회)
12월 30일 최춘배 목사(경강교회)
[문의: 오순절교회 석사A팀 033 263-0192]

카페 크리스찬

T:244-9117

시정 원

http://cafechristian.cyworld.com

준전성시회 성탄축제

- | | |
|----------------------|---------------|
| 1) 성탄 트리 설치
점등 행사 | 3) 도로 질서 섬기기 |
| 2) 성탄 찬양의 밤 | 4) 성탄카드 전하기 |
| | 5) 따뜻한 차 대접하기 |

- 일시: 12월 18일(토)~ 25일(토)
- 장소: 중앙 로터리
-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 주관: 춘천성시회운동본부/성탄축제 준비위원회

† 聖地토의 특별한 소리 †

- ♥ 성지 순례
- ♥ 단기 선교

- ♥ 여권 비자
-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애클럽

☎ 242-6400

♡ 2004 장로교 연합부흥회

지난 10월 31일~11월2일 저녁7시 한빛장로교회에서 춘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장로교 연합부흥회가 열렸다. 박은조 목사(분당생물교회)가 3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날 민족통일과 나라의 안정,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담당을 위해,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기도를 하였다.

♡ 직장선교회의 창립14주년 기념예배



직장선교회에서는 11월 7일 주일 저녁 창립 14주년을 맞아 석사감리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렸다. 최현선 장로의 사회, 김용일 장로의 기도, 허천 장로(국회의원의 측사가 있었고, 직전회장 민경옥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6장3절]라는 주제로 변종구 목사(세계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고, 지난 2004성화춘천선교대회 복음성가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월드비전 선교회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김철수 장로의 인도로 직장선교회를 위한 기도와 결단을 시간을 가졌으며 임택창 목사의 사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제23회 재가어르신 위로잔치



지난 11월23일(화) 오전10시30분 춘천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월드비전 바자회 수익금과 교회 및 단체의 후원으로 춘천 지역의 소외된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위로잔치가 열렸다. 이날 약 30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과 약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개회예배와 위로공연, 식사와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 이명진 관장은 "위로잔치가 어르신들에게 아까까지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느끼게 하고, 어릴때 마당을 통해 봉사자와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04 성탄절 교사강습회



지난 11월 15,16일 저녁 성탄절 발표와 장식을 위한 교사강습회가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주관으로 신성감리교회에서 열렸다. 2일 동안 성탄절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베드로선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가 성탄절 발표 시범을 선보였으며 성탄절을 맞는 교사들의 자세에 대해, 성탄장식 및 인형극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리고 춘천지회의 파티전도와 난타공연 시범도 선보였다.

♡ 2004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11월26일(금) 오전11시 남춘천감리교회에서 약60여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보고(총무 지용찬 목사와 감사보고(감사 임영일 안수집사), 회계보고(회계 김태권 장로)가 있었다. 그리고 회칙에 따라 회장에는 유진형 목사(남춘천감리교회), 총무에는 류오선 목사(동춘천감리교회), 감사에는 지용찬 목사(은혜장로교회)와 김태권 장로(동부장로교회)가 만장일치로 새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회계, 서기 및 고문, 위원장은 신임원에게 일임 후 차기 월례회 때 총회인준을 받게 된다.

♡ 춘천 제1기 아버지학교 개강



지난 11월 6일(토) 오후4시 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순복음춘천교회에는 도내전역에서 약14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아버지들이 모였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모인 수강생들은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처음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주제 아래 찬양과 영상매시지, 강의, 저녁식사와 함께 그룹별 토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아버지학교에서 주목할 것은 100여명의 스터들의 깎듯한 섬김과 중보기도이다. 성명남에서 일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게 모든 환경과 조건,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처음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중보기도팀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12월4일(토)까지 진행되는 아버지학교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추구하고, 좌절에 빠진 아버지들에게는 꿈을 던지며 아버지들의 권위를 바로잡아 가정의 회복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 추수감사예배

지난 11월 25일 저녁6:30 강원농협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는 강원농협기독교선교회 주관으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농협선교회장 이봉수 권사의 사회, 민경옥 장로의 기도, 유진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농촌과 농업의 위해, 국가와 민족과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임운식 장로와 조영준 목사가 특별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승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석사교회의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지난 11월 21일(일) 석사감리교회는 임택창 원로목사 추대(36년 4개월 직무) 및 순환관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에 배를 드렸다. 1000여명의 성도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인관 감리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동부연회 감목 박거중 목사의 설교와 감신대 이기춘 교수, 동문화장 방현 목사, 유종수 춘천시장, CBS본부 조영준 상무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날 임택창 목사의 목회활동을 기뻐한 1석사교회 50년사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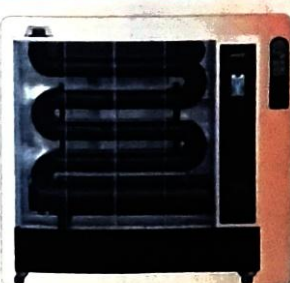
♡ GBT 춘천지부 창립예배

지난 11월23일(화) 저녁7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GBT[성경번역선교회]가 춘천지부 설립예배를 드렸다. 춘천지부가 사장 권기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춘천지부를 통해 춘천에 있는 많은 선교사원자들이 미전도종족을 구원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양육 받게 될 것이며 자기 말로 된 성경을 3000여 종족의 손에 쥐여주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GBT전국지부 간사들의 특별찬양과 GBT본부 대표 권성찬 선교사의 축사가 있었고, 선교전신자의 간증, 본부의 강대국 간사의 GBT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MPS 음 커밍데이

지난 11월27일(토) 오후2시부터 6시까지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MP 제7기의 졸업과 함께 MP생들의 축제가 열렸다. 한림대 CCC의 찬양을 시작으로 선교세계관학교(MPS)와 사역현장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졸업생들의 간증과 "선교동행"을 주제로 박종진 선교사의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제7기 약 80여명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조은제 목사(MPS 교장)는 "선교세계관학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갈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최대 70% 절감!!
연료 1회 보충으로 최대 8일간 사용



AH800F 60평형

에어렉스
원적외선티터



AH250 10~25평형

* 5~70평형 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 전문회사 제품이라 품질이 느껴집니다 ▶

- 연료소모는 최소, 열량은 최고입니다.
- 냄새·소음을 확 잡았습니다.
- 국내 유일 국가공인기관 인증 "원"마크 획득
- 50db이하의 초저소음
- 원적외선 열방사로 건강난방 실현
- 강력송풍 채택으로 원거리 입체난방 가능(F모델)



사우나



교실



침실



해시바주식회사

속초점 033)636-1335

이명희 집사

춘천점 033)263-2224 HP.011-524-7390

사설



“책망보다는 칭찬이
효과적이다”

박상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모든 것이 결산되는 년 말이다. 칭찬과 책망이 엇갈리는 시기이다. 가능하면 책망할 일 속에서도 칭찬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과 교회가 그러하면 이 사회와 나라도 그러할 것이다. 신문도 방송도 온통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뿐이니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생긴다. 김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 플로리다의 해상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되었다. 거대한 돌고래들이 멋진 묘기를 보여주었다. 돌고래들은 구경

꾼들에게 꼬리로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익살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돌고래 쇼를 구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돌고래가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김슬리는 “나는 부하 직원 몇 사람, 혹은 내 자식 한두 명을 가르치는데도 힘이 들고 지쳐 있는데 어 기서는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고래를 훈련시켜 묘기를 하게 했을까?” 참으로 궁금했다. 훈련사를 찾아가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이 지혜로 회사와 가정을 바꾸어 나가게 되었다.

첫째,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역으로 멘토나 상관의 마음을 얻으려면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잘못된 것은 못 본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한다. 잘못된 행동에 쓰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준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돌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한다.

셋째, 과정을 칭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꾸중 듣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꾸중 안 들으면 칭찬이라는 유교적 사상과 전통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관찰하고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을 잃고 산다. 그러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면,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화된다.

금년 년 말 모든 결산 속에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자.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주변이 칭찬할 일로 가득할 것이다. 제발 책망만 앞세우지 말자. 자라나는 후손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럽다.

알려드려요

◆예수사람운동

1) 'Rise up! 찬양집회'

일시: 12월 4일 저녁6시30분
장소: 춘천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2) '3·3 성성훈련'

일시: 1월 3일(월)~21일(금) 3주간 오후 2시~5시
대상: 시험마친 중3, 고3 각각 선착순40명
회비: 5만원(교재비 및 간식)
문의: 244-5400/011-9901-829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선막 금식 수련회'

일시: 12월 27일(월)~30일(목)
장소: 원주 CCC센터
문의: 254-5776 / 011-216-3621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순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6시30분부터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 011-9490-6612

◆JDM

1) '겨울집회'

일시: 12월 27일(월)~31일(금)
대상: 시험을 마친 고3 졸업생 이상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회비:5만5천원

2) '청소년 수련회'

일시: 2005년 1월 17일(월)~20일(목)
대상: 중·고등부 선착순300명 회비:6만원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IVF

1) 2004년 25차 정기총회

일시: 12월 11일(토) 오후5시
장소: 강남감리교회(윤병식 목사사무)

2) 겨울 성지예 훈련안내

일시: 2005년 1월 3일~8일, 10일~15일

장소: 아시아선교원 및 기타

내용: 아날로성경학교(대학1년차),
섬김이훈련(대학2년차)
말씀과 삶 훈련(BLC/대학3,4년차)

3) 캠퍼스 겨울수련회

일시: 강원대 12월 20일~22일, 교육대 12월27일~29일
한림대 12월 27일~30일, 성심/기능 2005년 2월 중
장소: 아시아선교원 및 기타
☐ 훈련과 수련회 문의는 252-5200/아시아선교원

◆어린이 전도협회

1) 성탄절 파티전도

일시: 12월 한 달간
대상: 파티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 및 교회, 학원 등

2) 2005년 3식 쿠티어전이전도자 훈련

일시: 2005년 1월 3일(월)~7일(금)
장소: 중앙감리교회
원서마감: 선착순20명 회비: 10만원 (숙박)
문의: 033-253-1443

◆베드로선교센터

1) 성경사공 위한 세계선교연구원 개강

일시: 2005년 1월 3일(월)~2월말까지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강의실

2) MP3I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 019-9903-1148

◆CBS강원선교대외

일시: 12월 8일(수) 저녁6시30분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강사: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제이락 음반발매 감사찬양예배

일시: 12월 13일(월) 저녁7시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문의: 244-8566/018-210-8566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종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55-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연금에 동참합니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의천레교회	소양성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새순교회
예광침례교회	열린교회
중앙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척사교회	춘천성결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천일현수막	엔투어
김준원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운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용규
이판호	이학규
유근창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윤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거성교회

목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포어: 직인 양, 직인 목사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담임목사 김수복

200-852 춘천시 동면 만천리 817-3 1층 4반
교회당: 252-6700 / 목사관: 252-6757
〈부설 '월드 리더' 선교원, 243-5392〉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춘천시 회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